

“목표는 우승”...女 배구대표팀, 그랑프리 출격

세계 상위 32개국 3그룹 나눠 자웅 겨뤄 1주차 불가리아·독일·카자흐스탄 상대

여자배구대표팀이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정상을 노린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회 1주차 경기가 열리는 불가리아로 출격한다.

그랑프리는 세계 여자배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3년 창설된 국제배구연맹(FIVB) 공식 대회로 세계 상위 32개국 3그룹으로 나뉘어 자웅을 겨룬다.

2그룹에서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목표는 우승이다. 1주차에 불가리아, 독일, 카자흐스탄을 상대하는 한국은 2주차에는 폴란드로 자리를 옮겨 폴란드, 아르헨티나, 페루와 격돌한다. 2일부부터는 인방에서 폴란드, 콜롬비아, 카자흐스탄과 만난다.

홍 감독은 이날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자국에서 경기를 갖는 불가리아와 폴란드, 우리와 공동 10위에 오른 아르헨티나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남미 팀들도 괜찮다. 어느 한

팀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 감독은 “목표는 우승이다. 우리도 연습을 열심히 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난 뒤 새롭게 출발점에 선 만큼 팬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우리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인천선수촌에 소집돼 한 달 가까이 구슬땀을 흘렸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V-리그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무리한 운동보다는 서브와 리시브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가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감독은 “기본이 돼야 한다. 선수들에게 3가지(수비·서브·리시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열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숙자, 이효희, 김사나 등이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끌면서 현재 확실한 세터가 눈에 띄지 않는



다”고 말한 홍 감독은 “세터가 중요하다. 열혜선, 이소라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온 시간이 길지 않아 높이나 길이, 패턴 등을 잡아가는 중이다. 풀을 다양적으로 기용할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홍 감독은 또 “김희진이나 김미연이 해줘야 한다. 레프트 김연경이

건재하다고 할 때 오른쪽에서 받쳐줘야 삼각편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두 선수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대표팀 레프트 공격수 이소영(GS칼텍스)은 훈련 중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달 30일 부상을 당한 이소영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왼 무릎 십자인대

가 파열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금은 부기가 있어서 수술이 어렵다. 2~3주 후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대에 오를 경우 이소영은 2017~2018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하다.

뉴스

‘설상가상’ 프로야구 이번엔 또 ‘승부조작’

프로야구계가 잇따른 악재로 뒤숭숭 하다.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은 지난 2013년 KBO 소속의 한 심판원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 심판매수나 승부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팬들은 끈지 않은 시선으로 거래를 바라봤다.

김승영 사장은 결국 구단과 팬에 누를 끼쳤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구단을 떠나는 순간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심판은 넥센 히어로즈에도 손을 벌린 것으로 드러났다.

KBO의 한 관계자는 “당시 넥센이 돈을 줬다고 했다가 안됐다고 반복해 자세히 조사를 했다.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A 심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가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구단과 심판간의 돈거래는 문제를 만들 소지가 충분하다.

프로야구의 한 관계자는 “구단 고위 관계자가 심판에 돈을

심판매수 의혹...금품 심판 연루다
승부조작 포착...구단 지진신고 요청

‘복덩이’ 버나디나, 김기태 아니었다면 진작에 짐쌌다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 불구 꾸준한 기용에 중심 우뚝



KIA 외국인타자 로저 버나디나가 팀의 중심으로 우뚝섰다. 처음에는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미운 오리로 눈치를 보던 처지였다.

그러나 경기를 거듭하면서 활약도가 높아졌고 3번타자까지 신분상승을 이루었다. 신뢰도 100%의 백조로 거듭났다.

이 과정에서 김기태 감독의 인내와 배려는 결정적이었다. 김 감독은 작년 시즌을 마치자 1번타자로 기용할 수 있는 발빠르고 어깨가 강한 외야수를 요청했다. 구단 스카우트팀은 2014년 WBC 대회에서 네덜란드 대표로 활약했던 버나디나를 낙점했다.

오키나와 캄포에 합류한 버나디나는 선구안과 빠른 주력, 강력한 어깨를 갖춘 수비를 과시했다. 총반히 1번 타자로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범경기에서 2타수 5안타 1타점에 불과했다.

타구가 내아를 벗어나지 못했고 뜬공도 적었다. 우려 담긴 시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개막전에 돌입했지만 마친기만이었다.

4월까지 타율 2할5푼5리, 9타점, 8도루를 기록했다. 도루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타격이 영 아니었다. 1번타자의 짐목은 타선에 주름살을 안겼다.

버나디나는 5월 들어 10경기에서 34타수 6안타 타율 1할7푼6리로 더욱 저조했다. 선발타인업에

서도 빠지기도 했다. 스스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구단도 감독의 의중을 파악해 새로운 대안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기태 감독의 선택은 정공법이었다. 아예 불박이 1번타자로 기용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했다. 선발타인업에서 제외하자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과 믿음을 보여주면 반드시 타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때마침 브렛 필이 스카우트로 일하기 위해 구단을 찾았고 버나디나에게 한국야구의 특성과 생활하는 방법 등에 조언을 했다.

김기태 감독은 “한 두 경기 빼니 눈치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다. 수비와 도루 능력이 좋으니 계속 경기에 내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한국투수들에게 적응한다면 반드시 타격도 나아질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버나디나도 스스로 매경기 전후로 타격 훈련에 매진했다. 메이저리그 500경기 이상을 뛰었던 자존심은 버렸다. 자신의 노력과 감독의 배려가 어우러지면서 거짓말처럼 타격이 달라졌다.

빨갛쭉 타구를 양산했고 멀리 안타가 쏟아졌고 4안타와 홈런도 평평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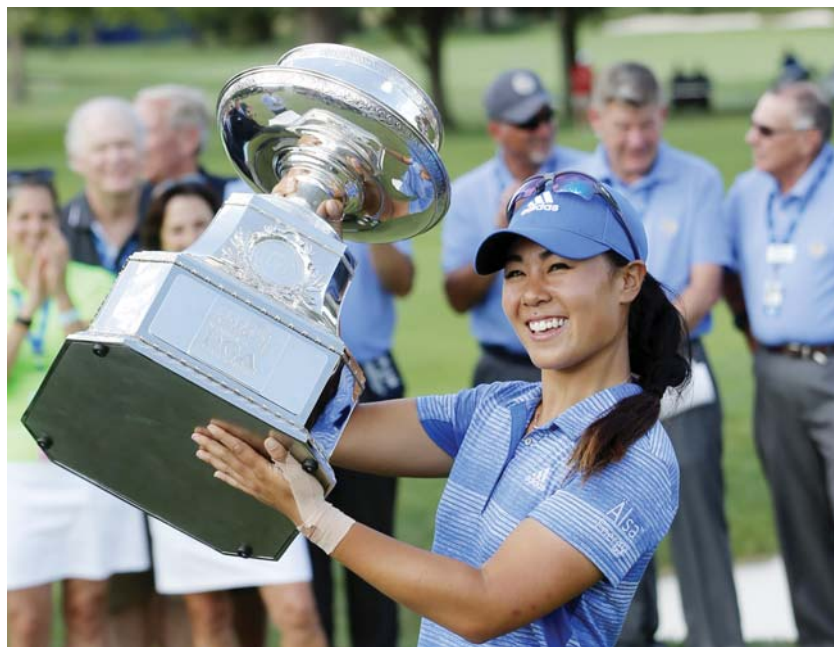
5월 타율을 3할7푼6리로 끌어올리더니 7월(2경기)까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었다. 결국 타율 3할1푼, 13홈런, 57타점, 69득점, 18도루의 복덩이 성적표를 내고 있다. 득점 1위이자 20(홈런)-20(도루) 까지 바라보는 모범생으로 변신했다. 타순도 3번타자로 격상했다.

최근 8연속 두 자릿수 득점 대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10타점, 14득점, 10타점을 생선했다.

버나디나가 극적인 반전을 이 루자 다시한번 김기태 감독의 인내력이 조명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기태 감독이 아니었다면 벌써 짐을 썼을 것이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감독의 인내와 믿음이 미운오리에서 우아한 백조로 변신시킨 것이다

효림이라 불리던 대니얼 강 “아버지께 우승 트로피를”



대니얼 강이 3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 트로피를 반씩 들어올리고 있다.

재미동포 대니얼 강(25)이 감격적인 프로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했다.

아미추어 최강자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데뷔 5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대니얼 강은 3일(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

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18번 홀(파) 버디에 성공하며 13연타로 정상에 올랐다.

2012년 프로에 데뷔해 13개 대회 만에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달성했다. 아미추어 때 출전한 대회를 포함하면 14번째 대회에서 거둔 값진 우승이다.

대니얼 강은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골프를 시작해 2년 만인 2007년 US 여자 오픈에 출전했다.

4살때까지 부산서 자라, 2013년 세상 떠난 아버지 사랑 각별 아마 최강자, 프로 데뷔 138번 만에 우승...미모와 실력 겸비

적일 정도로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까지 순목 부상에 시달리며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올 시즌 공동 4위에 두 번이나 오르는 등 톱10에 4차례 들며 우승에 근접한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에서 챔피언십의 중요함을 극복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오랜 무승 퍼팅을 성공시킨 대니얼 강은 캐디와 기쁨을 나누는 뒤 관중석에서 자신의 경기를 지켜보던 어머니

를 불러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이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니얼 강의 아버지 강계성씨는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US 여자 오픈 출전을 앞두고 대니얼 강은 아버지의 수술을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야 했지만 아버지가 대회 출전을 강력하게 권유하면서 투어를 이어간 적이 있었다.

그해 11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대니얼 강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2014년 우측 손등에 ‘아빠라’는 문신을 새겼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있는 ‘just be’라는 문신 역시 “항상 그대로의 내가 돼라”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17살 때 새긴 것이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대니얼 강은 “아빠는 내게 자신감을 심어준 사람이다. 아빠는 항상 긍정적인 분이셨고, 그런 아빠를 존경했다. 항상 아빠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아버지와 추억을 떠올렸다.

유년기를 부산에서 보낸 대니얼 강은 한국에 있는 동안 효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산에 계셔서 부산에서 자랐다. 네 살까지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 효림이라는 이름을 썼다. 정식 이름이 아니라 가족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열리는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지만 한국 음식과 음악을 좋아하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지난 1월 미국 골프전문매체 골프닷컴이 뽑은 2017년 골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5명의 선수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생애 첫 우승의 기쁨과 함께 대니얼 강은 이제 미모뿐 아니라 실력까지 겸비한 정상급 선수가 됐다.

대니얼 강은 “우선 집이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갈 것”이라며 “2주 뒤에 US여자오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축하 파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뉴스